

김태흠 충남도지사, “행정통합, 국가 대도약 마중물 될 것”

김태흠 지사, 충청미래포럼 참석해 ‘강력 추진’ 의지 재확인 “17개 시도 행정 체제 버리고 국가 개조 버금가는 통합 절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를 바탕으로 한 560만 충청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17개 시도라는 낡은 행정 체제를 버리고 국가 개조급 행정통합이 절실하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김 지사는 20일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열린 ‘2025 충청미래포럼’에 참석했다.

도가 후원하고 국민일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만호 세종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김경호 국민일보 사장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포럼은 ‘충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우 위원장 기조연설과 충청 4개 시도 민간 전문가 주제 발표, 패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교통과 통신, 인터넷 발달에 따른 주민 생활·문화·경제권 변화는 고비용과 저효율을 낳고 있는 현 17개 시도 행정 체제



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전국을 대역섯 개의 권역으로 묶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광역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변혁과 도약의 밑바탕이 될 것이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전충남특별시는 인구 360만으로 전국 3위, 경제력은 190조 원으로 덴마크와 같은 유럽의 신흥 산업국가들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전충남특별시 권역의 균형발전은 궁극적으로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토대가 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할 충청권의 미래상이 될 것”이라며, “560만 충청 메가시티를 만들면 수

도권 대학과 대기업이 이전하고,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해 충청권이 대한민국 경제·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중앙정부에 요구해 이양받을 국세 3조 원 이상과 행정조직 슬림화로 절감되는 인력과 예산은 고스란히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충청권이 하나의 대도시권을 형성하면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흉내만 내왔던 지방자치제를 탈바꿈해 자치경찰의 실질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도민 여러분들에게 충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후배·후손들이 서울을 넘어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등 전 세계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는 ‘극세척도’의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면 충청이 대한민국의 특별한 중심으로 도약하는 날은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가두호 기자



▲ 20일 시청에서 열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현판제막식(왼쪽 네 번째부터 강정에 장관, 이완섭 서산시장)

서산시, 국가유공자 예우로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

지난 20일 시청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현판제막식 열려

충남 서산시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 온 결과,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청 일원에서는 이완섭 서산시장, 강정에 국가보훈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현판제막식이 진행됐다.

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민선8기 공약 보훈수당 100% 인상을 2023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주요 시책으로 기존 월 25만 원이었던 참전명예수당을 2023년 월 40만 원, 지난해 해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기존 월 10만 원이었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은 2023년 월 16만 원, 지난해에는 월 20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는 월 23만 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으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보조수당 특례를 신설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 국가유공자 건강 지원,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참전유공자,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가 우리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훈이 존중받는 도시’를 목표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성진 기자

광주시, 아이디어가 ‘정책’...정책제안 확대

‘현안정책’ 시민 공모·업무개선 발굴·우수제안은 포상 태스크포팀 구성해 정책제안 숙성·실행 관리 체계화

광주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시정 반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발굴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더 제안하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목표로 ‘2025년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제안신청 기회 확대 ▲제안 속의 및 발전절차 마련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제안신청 기회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공모를 추진한다. 또 광주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

원을 대상으로 자기업무에 대한 개선 제안을 내★일 제안’발굴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시정 현안을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별 위원회 개최 시 역량을 갖춘 전문가 위원들의 내실있는 제안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제안 속의 및 발전 절차와 함께 실행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시민 제안의 경우 시정 활용가치는 있지만 구체성·실행 가능성이 낮아 이를 숙성 및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제안숙성 내부 실무담당팀(TF)을 구성해 제안 심사, 실행 관리를 하고, 제안종결담당자가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제안심사처리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기여도별로 포상한다. 채택된 제안에 대해 1년간 실시한 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 절감, 국고·조세수입 증대, 행정개선 등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특히 기존에는 국민신문고 제안만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 공모에 추천했

지만, 올해부터는 광주시 소통플랫폼인 광주온(ON)의 채택 제안도 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제도 개선을 통해 제안접수 건수와 채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창의적 정책제안 반영으로 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시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국민제안’과 광주ON 누리집(gwangjuon.gwangju.go.kr) ‘시민제안’을 통해 하면 된다. 담당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 중 ‘금·은·동·장려상·노력상’에 선정된 제안은 광주시장 상장과 함께 최대 8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묻히지 않고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준 기자

영동군, 5월 전국 청년상인들이 온다

제2회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

충북 영동군이 전국 청년상인들의 축제인 제2회 전통시장 청년상인 축제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영동군에서 오는 5월 말경에 3일간(23일~25일 예정) 영동 하상주차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개최되며, 청년상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영동군은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통시장육성재단이 주관하는 전국 공모사업에 응모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 2개 지자체(영동군, 울산광역시 중구)가 최종 후보에 올라, 지난달 13일 진행된 현장평가를 통해

영동군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축제는 국비 5억원이 투입되며, 전국 각지에서 온 청년상인과 대한민국 K-와인의 선두주자 영동와인 2세대 와이너리가 참여해 우수상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푸드트럭, 청춘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동군은 이번 축제를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역경제 부양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기라 기자

충주시, 제12회 충주호 벚꽃축제 개최

오는 28일~30일 충주댐 물문화관 일원 개최

충주시가 이달 말, 벚꽃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봄맞이에 나선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충주사 회담체연합회(회장 임정기)가 주관하는 ‘제12회 충주호 벚꽃축제’가 충주댐 물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충주호 벚꽃길은 매년 봄, 충주호 물길을 따라 수백 그루의 벚나무가 만개해 절경을 이루며, 연봉홍 벚꽃과 반짝이는 물결이 어우러져 전국적인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카메라 앵글을 어디에 두어도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이곳에서 관광객들은 벚꽃의 낭만을 한껏 즐길 수 있다. 이번 축제는 △충주호 사랑다짐대회 △벚꽃길 걷기대회 △충주의 날 기념 제7회 어린이 그리기 대회 △제1회 충주호 전국 가요제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충주댐 물 문화관에서는 토요일(과속스캔들)과 일요일(국제시장) 각 오후 2시, 두 차례 무료 영화 상영이 진행되며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충주호 유람선을 이용 시 3,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돼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축제의 어린이 그리기 대



회 시상은 오는 4월 23일 탄금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충주 지명 탄생 1,085주년 기념 ‘충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그리기 대회 참여 접수 기간은 3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며, 충주시 통합예약사이트(www.chungju.go.kr/rev)를 통해 가능하다.

임정 회장은 “최근 가장 이변으로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지만, 다채로운 콘텐츠 구성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욱 깊이 담아냈다”라며, “많은 분이 오셔서 봄의 설렘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연 기자



쿠팡(주), 제천시에 1만 6천평 규모 첨단물류센터 착공

직고용 최대 500명,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긍정효과 기대

국내 온라인 유통기업인 쿠팡(주)은 지난 19일 제천시 왕안동에 위치한 제천제3일반산업단지에서 충북 물류의 거점이 될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은 김창규 제천시시장과 박대준 쿠팡(주) 대표를 비롯한 충청북도 및 관내 기관·단체장 등 내빈과 시민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제천첨단물류센터는 관련 인허가 및 설계 등을 마치고 금년 3월 착공하여 빠르면 2027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충청북도 및 제천시 일대의 로켓배송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쿠팡(주)은 물류센터 운영인력 최대 500여 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으로 지역 내 고용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간 및 운영을 통한 지역 내수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판매상품 입고가 가능한 물류센터로서 전국적 유통망을 갖춘 물류 인프라를 통한 전국 단위 판로 확보 및 물류비용 감소로 지역 농가 및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등 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박대준 쿠팡(주) 대표는 “제천첨단물류센터가 순조롭게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 제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쿠팡의 제천첨단물류센터 착공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물류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기라 기자

논산 농특산물, 전국 소비자 만남의 장 마련

‘논산육군병장물’ 3월 26일 정식 오픈... 딸기부터 특산물까지 한눈에

논산의 우수한 농산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논산육군병장물’이 오는 26일 정식 오픈한다.

‘논산육군병장물’은 지역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국의 소비자들

품질 좋은 논산의 농특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논산시 공식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번 정식 오픈을 기념하여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 간 논산육군병장물 신규가입 고객 및 알뜰방기 설정 고객 1,000명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논산딸기’

를 비롯한 전 품목에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께는 논산의 농특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제27회 논산딸기축제’와 연계한 라이브 특집 방송을 통해 달콤하고 신선한 논산딸기와 농식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논산육군병장물’ 입점 업체를 수시 모집하고, 다양한 마케팅 및 판촉 행사를

기획해 논산시농산물공공브랜드 ‘육군병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 경쟁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백성현 시장은 “논산육군병장물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우수한 논산의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갈 것”이라며 “계속해서 유통 판로를 확보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논산 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철기 기자